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에 나타나는 형식문체소의 번역

김도훈* · 이은숙
(부산외국어대)

1. 서론

제인 오스틴(Jane Austen)은 모럴리스트에 가까운 정확한 관찰력과 표현의 간결성을 영국 고유의 유머로 감싸 안음으로써 18세기 영국 소설은 물론 후대의 세계 문학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대표작 『오만과 편견(Pride and Prejudice)』은 현재까지도 계속 조명되고 있다. 오스틴은 젊은 남녀의 사랑과 결혼을 주제로 인간의 본성과 인물 상호간의 관계, 인간의 갈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다양한 문체론적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한정된 세계 속에서의 일상적이고 진부하며 단조로울 수 있는 이야기를 사실적이고 흥미롭게 묘사한다.

『오만과 편견』에 나타나는 문체, 그리고 문체의 번역을 살펴보고자 하는 본 연구는 다음 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한다.

* 교신저자

[1] 문체와 문체소는 무엇인가?

[2]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 번역문에 드러나는 형식문체소의 번역 양상은 무엇이며, 문체론적 효과가 재현되고 있는가?

연구문제 [1]은 문체의 가치를 살펴보면서 문체와 문체소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하고 유형을 분류한 후 문체론적 효과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연구문제 [2]는 『오만과 편견』 번역서 4종을 비교함으로써 형식문체소의 번역 양상을 파악하고 문체론적 효과를 비교하고 논하기 위함이다.

앞의 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본고에서 비교·분석한 텍스트는 아래와 같다.

〈표 1〉 분석 텍스트

	저자/역자	도서명	출판연도	출판사
ST	Jane Austen	<i>Pride and Prejudice</i>	1813/1989	Signet Classics
TT1	오화섭	오만과 편견	1989	범우사
TT2	윤지관, 전승희	오만과 편견	2013	민음사
TT3	정은경	오만과 편견	2005	청목
TT4	정홍택	오만과 편견	2003	소담

2. 문체와 문체소

아래에서는 문체의 중요성, 문체의 어원과 문체소와의 관계, 그리고 문체소의 유형을 살펴보기로 한다.¹⁾

2.1 문체의 중요성

의미를 언어적 틀에서 분리할 수 있다고 전제하는 해석이론²⁾, 형식적 대응

1)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제2장)은 필자의 기존 연구, 즉 김도훈(2014)에 기초함

2) 셀리스코비치(Seleskovitch) 등 파리통번역대학원(ESIT) 소장학자들을 중심으로 발전

에 비해 역동적 등가의 우위를 강조하는 나이다(Nida 1964) 및 나이다와 테버(Nida and Taber 1969)의 연구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번역 실무와 연구에서 의미 핵심적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나이다와 테버(1969: 12)에 따르면 “번역은 출발어의 메시지를 가장 자연스러운 등가를 이루는 수용자의 언어로 재생산하는 것이며, 1차적으로는 의미(meaning)의 등가를, 2차적으로는 문체(style)의 등가를 달성해야 한다.” 이와 같이 의미와 문체의 분리, 그리고 의미 차원의 등가 달성의 우위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의미는 보다 명료하게 전달하지만 문체를 간과하는 번역이 용인될 때가 많다.³⁾ 물론, 가독성 또는 이해용이성 제고를 위한 의도적인 번역 전략인 경우도 있다. 하지만 문체 효과 상실 내지 왜곡, 또는 번역가의 문체 주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문학작품 번역에 있어서는 문체와 의미 간에 밀접한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무엇’ 못지않게 ‘어떻게’ 말하는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김효중 1988: 262) 문체와 의미가 창출하는 관련성의 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박옥수 2011: 70). 더 나아가, 문체는 작품의 정서를 드러내고 리듬과 활기를 불어넣으며 전체적인 분위기를 결정하기 위한 의식적·의도적 장치로 사용되기도 한다.

2.2 문체와 문체소

라틴어 ‘stylus’가 어원인 문체(style)는 원래 ‘철필’(iron pen)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다가, 글자의 ‘모양’을 의미하다가, 문학에서는 표현이나 어법의 ‘방식’을 가리키게 되었다. 이러한 문체는 의미와 분리될 수 없는, 저자의 의도적 선택에 의한 기법과 장치, 즉 문체소(style marker)의 총합이다. 저자는 의미 전달에 가

되어 온 해석이론은 회의통역 분석을 위해 발전시킨 인지이론으로 번역에도 확장·적용되고 있다. 탈언어화와 재구성을 요체로 하고 있다. 셀레스코비치와 르데레르(Seleskovitch and Lederer 1993) 및 르데레르(Lederer 1994) 참조.

- 3) 베이커(Baker 1992)는 이런 현상을 ‘명시화 가설’(explicitation hypothesis)을 통해 설명한다(243-245). 즉, 원문에 비해 번역문이 보다 논리적이고 의미 파악이 수월한 경우가 많은데, 이는 번역가가 원저자의 논리 구조나 문체를 무시하고 내용을 첨가하거나 이해용이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문장구조로 바꾸고 원문에서 내재화된 의미까지 명시화함으로써 의미와 논리를 보다 명료하게 드러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장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문체소를 동원하며, 반복과 축적을 통해 작품과 작가의 문체가 형성된다. 다시 말해, 저자가 어떤 문체소를 이용해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지 선택하고, 그 선택의 결과로써 문체소가 다양하게 조합·배열되면 문체소의 통합체인 문체가 드러나게 된다.

문체는 특정 문맥 속에서 특정한 느낌을 야기하는 개개의 구성요소 혹은 미학적 장치의 통합적 작용에 의해 생겨나는데, 이 구성요소가 바로 문체의 중요한 특성인 문체소다. 언어적 요소들이 특수하게, 그리고 의도적으로 사용된 것이 문체소이기 때문에 일탈, 유사성, 반복, 특이성, 연속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김양훈 2011: 64). 결국, 창작의 신비가 되는 표현 수단, 즉 문체소가 텍스트 내에서 총체적으로 작용하여 하나의 문학 작품을 형성했을 때 문체가 드러나게 되며, 결과적으로 문체소와 문체소의 총합체가 바로 문체다(박갑수 1994: 108).

문체소는 다양한 언어적·문학적 장치를 포괄하며 서로 영향을 미치거나 중첩되는 부분도 있지만 크게 내용문체소와 형식문체소로 나눌 수 있다.

〈표 2〉 문체소의 유형⁴⁾

분류		종류	
내용 문체 소	경어법	주체 경어법, 객체 경어법, 상대 경어법	
	단어	동의어, 유의어, 다의어, 반의어, 관용어, 색채어, 고유어, 외래어, 전문어, 유행어, 토속어, 방언, 고어 등	
	어조	사설조, 풍자, 과장된 어투, 완곡한 어투, 비유적인 어투, 무미건조한 어투 등	
	인칭	1인칭, 2인칭, 3인칭	
	품사	명사, 동사, 부사 등	
	수사법	낱말·구절 중심	의성법, 의태법, 미화법, 대구법, 열거법, 열서법, 점층법, 점강법, 연쇄법, 대칭법, 반복법
		비유·비교 중심	직유법, 은유법, 활유법, 의인법, 제유법, 환유법, 비교법, 중의법, 상징법, 대조법, 풍유법
		재미·효과 중심	반어법, 풍자법, 냉조법, 과장법, 경구법, 억양법, 역설법, 희언법, 양도논법, 모순어법, 정정법, 흉내법
		완곡표현 중심	우언법, 군말법, 탈선법, 완곡법, 완서법, 완화법, 중단법, 예변법, 함의법
		문(文)의 구조·형태	도치법, 도장법, 설의법, 영탄법, 돈호법, 인용법, 현재법, 생략법, 문답법, 묵언법, 형용어구법, 추가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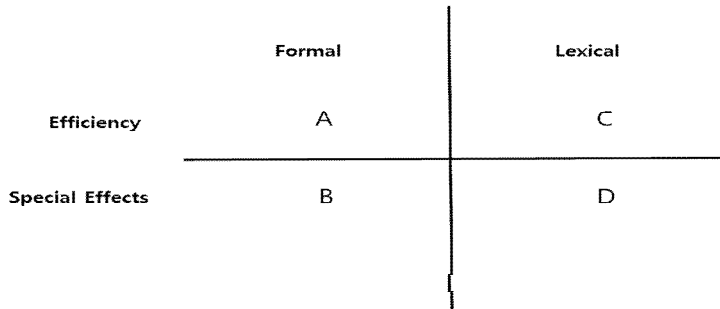
		변형 중심	삽입법	
형식 문체소	문장 길이	짧은 문장, 긴 문장		
	문장 구조	홀문장		
		겹문장		
		불완전한 문장		
	문장의 종결 형태와 그 문장부호	평서문, 명령문, 청유문	온점	
		감탄문, 청유문	느낌표	
		의문문	물음표	
		문장 내	반점	

위에서 살펴볼 수 있듯, 내용문체소에는 경어법, 관점, 단어, 어조, 인칭, 품사, 수사법이 있으며, 형식문체소에는 문장의 장단, 문장의 구조, 문장의 종결 형태와 그 문장부호, 행, 화법 등이 있다. 물론, 이러한 분류법에도 한계는 있다. 내용과 형식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관된 것이기 때문이다(박옥수 2011: 70). 하지만 내용문체소는 주로 어휘적 요소나 의미 자체의 비중이 높고 언어권에 따른 격차가 큰 반면 형식문체소는 어휘적 요소와는 관련이 없고 의미의 비중은 상당히 낮고 언어권에 따른 격차가 거의 없다. 이러한 이유로 본고에서는 형식문체소 번역의 문제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아울러 문체소는 역할에 따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문체소와 효과를 창출하는 문체소로 나눌 수 있으며, 특성에 따라 형식적(단어들의 배열) 문체소와 어휘적(단어, 형태소 등) 문체소로 나눌 수 있다(나이더 1964: 145). 이 경우 아래 그림과 같이 조합을 통해 양방향으로 나뉘며 결과적으로 4가지 문체적 효과로 이어진다.

4) 김상태·박덕은(1994) 및 장하늘(2001)의 논의를 바탕으로 필자가 재구성했다. 분류 및 종류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김도훈(2014) 참조 요망.

〈그림 1〉 문체의 기본 특성 - 기능 분류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 (A)의 경우 형식적 특성이 주로 효율성(이해용이성) 향상을 위한 것이며, (B)의 경우 형식적 특성이 특수 효과 창출을 위한 것이며, (C)의 경우 어휘적 특성이 효율성 향상을 위한 것이며, (D)의 경우 어휘적 특성이 특수 효과 창출을 위한 것이다.

3. 형식문체소의 번역 사례 분석

아래에서는 제2장에서 살펴본 형식문체소 분류에 따라 번역서 4종에 대한 비교를 통해 형식문체소의 번역을 논하기로 한다.

3.1 문장 길이의 번역

형식문체소 중 문체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장치가 바로 문장의 길이이다. 일반적으로 장문은 연속성과 정조를, 단문은 속도감과 현장감을 드러낸다. 물론, 저자에 따라 의도와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문장의 길이에 따라 글이 주는 느낌은 확연히 달라진다. 단문은 일종의 리듬감과 속도감을 독자에게 제공하고 지루한 느낌을 없애면서 작품에 순간적으로 몰입하게 하는 효과를, 장문은 흐르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순하고 부드러운 정서를 보장할 수 있다(박갑수 1994: 94). 다시 말해, 단문은 현장감과 긴박감을 드러내는 장치이며 장문은 흐름과 연속성을 표현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이렇듯 문장은 길이에 따라 다양한 느낌을 준다. 따라서 저자가 내용을 표

현하기 위해 선택한 어휘의 조합인 문장의 길이를 유지하여 번역할 수 있을 때는 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래에서는 문장의 길이에 따른 문체 효과와 번역의 문제를 살펴보겠다.

ST ①In this perturbed state of mind, with thoughts that could rest on nothing, she walked on; but it would not do; in half a minute the letter was unfolded again, and collecting herself as well as she could, she again began the mortifying perusal of all that related to Wickham, and commanded herself so far as to examine the meaning of every sentence. (145)

TT1 ①이렇게 아무것도 정착할 수 없는 혼란된 마음으로 엘리자베스는 사뭇 걸었으나 그것으로는 진정이 되지 않았고, 30초도 못 되어 그녀는 편지를 다시 펴들었다. ②그러고는 될 수 있는 한 마음을 가다듬어 위컴 씨에 대한 대목만을 다시 정독하기 시작했고 각 문장의 의미를 정확히 음미하기 위해 감정을 억제했다. (226)

TT2 ①그녀는 이처럼 흥분된 상태로, 갈피를 못 잡고 서성댔다. ②그러나 그런 상태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③그녀는 30초도 지나지 않아 편지를 다시 펼쳤고, 최대한 마음을 가다듬고 위컴과 관련된 부분을 살살이 다시 읽는 굴욕적인 작업에 들어가서, 흥분을 달래가며 문장 하나하나의 의미를 따져보았다. (289)

TT3 ①이렇듯 갈피를 못 잡는 혼란스러움 때문에 그녀의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다. ②그녀는 30초도 못 되어 다시 편지를 펼쳐들었다. ③그러고는 가능한 한 마음을 가라앉히며 위컴씨에 관한 대목만을 다시 정독했으며, 문장 하나하나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감정을 억제했다. (195)

TT4 ①어떠한 것에도 정착할 수 없는 혼란스런 마음으로 엘리자베스는 계속 걸었으나 그것으로는 도무지 진정되지 않았다. ②30초도 못되어 그녀는 편지를 다시 펴들었다. ③그러고는 가능한 한 마음을 가다듬어 위컴 씨에 대한 대목만을 다시 정독하기 시작했고 각 문장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감정을 억제해야만 했다. (244)

이 대목은 엘리자베스가 다이시의 편지를 받고서 위컴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었으며 그동안 자신의 분별력에 지나친 자부심을 가지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음을 깨닫는 부분이다. ST에서는 이러한 엘리자베스의 혼란스런 심리상태를 한 호흡으로 길게 나타내고 있다. TT1에서는 엘리자베스의 심리와 행동을 연속적으로 나타내려 했으며 크게 두 문장으로 분리했다. TT2, TT3, TT4는 세 개의 문장으로 끊음으로써 주인공의 심리적 흐름이 잘 전달되지 못하고 장면이 끊어지는 느낌을 주고 있다.

ST ①It was generally evident whenever they met, that he did admire her; and to her it was equally evident that Jane was yielding to the preference which she had begun to entertain for him from the first, and was in a way to be very much in love; but she considered with pleasure that it was not likely to be discovered by the world in general, since Jane united with great strength of feeling, a composure of temper and a uniform cheerfulness of manner, which would guard her from the suspicions of the impertinent. (40)

TT1 ①그들을 만나면 빙리가 제인을 사모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②그리고 엘리자베스도 언니가 처음부터 빙리에게 호감을 가졌으며 그 감정에 사로잡혀, 말하자면 그를 열렬히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③그러나 엘리자베스가 한 가지 다행스럽게 여긴 것은, 언니가 감정에는 약하지만 침착한 기질과 한결 같은 쾌활한 태도를 겸하고 있어서 그 점이 무례한 사람들의 의심을 막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세상 사람들에게 탄로 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30)

TT2 ①만날 때마다 그가 제인을 각별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누가 봐도 분명했고, 제인도 처음부터 그에게 품었던 호감에 굴복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는 사랑에 빠져 있다는 사실 역시 엘리자베스에게는 분명해 보였다. ②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 사실을 눈치 채지 못하리라는 것이었다. ③제인은 풍부한 감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침착한 성격과 언제나 변함없이 쾌활한 태도에 결합되어 있어서, 남 일에 끼어들기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도 무슨 의심을 품기가 어려웠다. (33)

TT3 ①빙리 씨와 제인이 함께 있는 동안 그가 제인을 좋아한다는 것은 곧 알 수가 있었다. ②엘리자베스 역시, 제인이 처음 빙리를 봤을 때부터 그에게 호감을 느끼고 사랑하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③그러나 한 가지 엘리자베스가 다행스럽게 여기는 것은 언니가 비록 감정에는 약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침착하고 쾌활한 태도를 칭찬한다는 점이었다. (25)

TT4 ①그들을 만나면 빙리가 제인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②그리고 엘리자베스도 언니가 처음부터 빙리에게 호감을 가졌으며 그 감정에 푹 빠져, 그를 열렬히 사랑하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③그러나 엘리자베스가 기쁘게 생각하는 것은, 언니가 감정에는 약하지만 침착한 성격과 한결같이 쾌활한 태도를 겸하고 있어서 그 점이 말 많은 사람들의 의심을 막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세상 사람들에게 탄로 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30)

ST의 문장 특징을 살펴보면, 문장을 피리어드로 끊기보다는 콤마나 세미콜론을 이용하여 길게 늘여서 나타내고 있다. 이는 『오만과 편견』 원문 문체의 큰 특징이다. 세미콜론을 사용함으로써 앞뒤 절이 서로 연관성을 갖고 있음이 드러나며, 주인공들의 생각과 심리를 표현하는 데 있어 비교적 친밀하고 마치 ‘현장에서 이야기를 전하는 듯’한 생생함이 전달된다.

ST에서는 길게 하나의 연속된 문장이 제시되어 있는데 반해 TT1, TT2, TT3, TT4 에서는 세 개의 문장으로 나누어서 번역했다. 또한 원문에서 세미콜론과 접속사로 연결된 부분을 TT1 과 TT4 번역본에서 모두 한국어 접속사를 이용하여 새로운 문장으로 나뉘었고 TT2와 TT3에서는 ‘~했고’라는 조사와 ‘역시’라는 부사를 이용하여 문장을 연결했다. 가독성은 다소 높은 반면 흐름이 끊어진다.

ST ①‘Oh! my dear Mr Bennet,’ as she entered the room. ②We have had a most delightful evening, a most excellent ball. ③I wish you had been there. ④Jane was so admired, nothing could be like it. ⑤Everybody said how well she looked. ⑥Mr. Bingley thought her quite beautiful, and danced with her twice. ⑦Only think of that my dear; he actually danced with her twice. (25)

TT1 ①“아이, 여보”하고 방에 들어서며 아내는 말했다. ②“이렇게 재미있는 밤이 또 어디 있겠어요. ③정말 굉장한 무도회였어요. ④당신도 가실 걸 그랬어요. ⑤제인이 가장 인기가 좋았는데, 모두들 예쁘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⑥빙리 씨도 그 애가 좋다고 두 번이나 춤을 쳤어요. ⑦생각해보세요, 글썸. ⑧정말 두 번이나 춤을 쳤다니까요.” (22)

TT2 ①“아유! 여보, 아주 즐거운 저녁이었어요. ②무도회가 아주 훌륭했다고요.” ③그녀는 방에 들어오면서 말했다. ④“당신도 가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⑤모두들 제인을 칭찬했고, 하여간 최고였어요. ⑥누구나 제인이 정말 예쁘다고 한마디씩 했으니까요. ⑦빙리 씨도 제인이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춤을 두 번이나 추었어요. ⑧여보 한번 생각해봐요, 글썸. ⑨정말 두 번 추었다니까요.” (22)

TT3 ①“여보, 이렇게 멋진 밤이 어디 있겠어요? ②정말 굉장한 파티였어요. ③당신도 가실 걸 그랬어요. ④제인이 얼마나 인기가 좋았다고요. ⑤모두들 미인이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⑥빙리 씨도 두 번이나 춤을 쳤어요.” (17)

TT4 ①“아이, 여보”하고 방에 들어서며 아내는 말했다. ②“이렇게 재미있는 밤이 또 어디 있겠어요. ③정말 굉장한 무도회였어요. ④당신도 가실 걸 그랬어요. ⑤제인이 가장 인기가 좋았는데, 모두들 예쁘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⑥빙리 씨도 그 애가 좋다고 두 번이나 춤을 쳤다니까요.” (21)

딸들과 무도회를 다녀온 베넷 부인이 남편에게 기쁨에 넘쳐서 속내를 이야기하는 대목이다. 자신의 큰딸 제인이 빙리와 함께 두 번이나 춤을 추었다는 사실에 감탄하며 짧은 단문으로 연속적으로 문장을 이끌고 있다.

원문은 모두 일곱 개의 문장으로 되어있고 마지막 문장은 세미콜론으로 연결되어 있다. 세미콜론으로 연결된 문장은 TT1과 TT2에서 두 개의 문장으로 나누어 번역함으로써 베넷 부인의 심정을 속도감 있게 재현하고 있다. TT3과 TT4의 번역에서는 원문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나타내고 문장 수도 줄어들어서 베넷 부인의 심경을 문체로 전달하는 데 미흡하다.

3.2 문장구조의 번역

형식문체소 중 문장의 구조는 흘문장과 겹문장, 그리고 불완전한 문장을 포함한다. 또한 앞서 살펴본 문장의 길이에도 영향을 미친다. 흘문장은 외계를 서술하기에 알맞고 겹문장은 내계를 표현하기에 적합해서 사건 진행을 위한 서술에는 전자가, 감정 묘사나 인물 묘사에는 후자가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박갑수 1994: 92). 한편, 소설에서 자주 발견되는 불완전한 문장은 긴밀성과 속도감을 드러내기에 적합한 장치다. 이는 미완성된 문장을 통한 상상력 자극과 문장 간의 긴밀성 강조 효과에 기인한다. 영어와 한국어 모두 이러한 장치를 수용하고 있고 그 효과도 대등하기 때문에 번역 시에도 재현할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는 흘문장과 겹문장 사용에 따른 문체적 효과의 변이, 그리고 불완전한 문장사용에 따른 문체적 효과의 변이를 번역과 결부해 살펴보겠다.

ST ①Mr. Bingley was good looking and gentleman. ②He had a pleasant countenance, and easy, unaffected manners. ③His sisters were fine women, with an air of decided fashion. ④His brother-in-law, Mr Hurst, merely looked the gentleman. ⑤But his friend Mr Darcy soon drew the attention of the room by his fine, tall person, handsome features, noble mien; (18)

TT1 ①빙리 씨는 잘생긴 데다 신사다워 보였다. ②그는 밝은 표정과 여유 있고 자연스러운 태도의 소유자였다. ③그의 누이들은 확실히 상류 계급의 품위 있는 훌륭한 여자들이었다. ④매부인 허스트 씨는 그저 신사처럼 보일 뿐이었다. ⑤그러나 그의 친구인 다르시 씨는 얼마 안가서 날씬하고 큰 키, 잘생긴 얼굴, 고상한 태도로 방안의 주위를 모았다. (19)

TT2 ①빙리 씨는 잘 생겼고 신사다웠다. ②유쾌한 용모에, 편하고 가식 없는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③그의 누이들은 상류층 티가 나는 훌륭한 여성들이었다. ④그의 매부인 허스트 씨는 그냥 보통의 신사처럼 보였다. ⑤그러나 그의 친구인 다아시 씨는 멋지고 흰칠한 몸매와, 잘생긴 이목구비, 고상한 태도로 금방 방 안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다. (18)

TT3 ①빙리 씨는 미남인 테다 신사다웠다. ②그는 명랑했고 여유 있었으며 테도가 자연스러운 청년이었다. ③그리고 그의 자매들도 확실히 상류계급 여인들의 품위를 지닌 훌륭한 숙녀였다. ④매부인 허스트 씨는 그저 신사답게 보일 뿐이었다. ⑤그러나 그의 친구인 다시 씨는 곧 여러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⑥훤칠하게 큰 키에 잘생긴 얼굴, 그리고 고상한 태도 [...] (15)

TT4 ①빙리 씨는 잘생긴 테다 몹시 신사다워 보였다. ②그는 명랑하고 여유 있고 자연스러운 태도의 소유자였다. ③그의 누이들은 확실히 상류계급의 품위 있는 훌륭한 여자들이었다. ④매부인 허스트 씨는 그저 신사처럼 보일 뿐이었다. ⑤그러나 그의 친구인 다르시 씨는 얼마 안 가서 온 방안의 주의를 모았다. ⑥날씬하고 큰 키, 잘생긴 얼굴, 고상한 태도 [...] (18)

ST에서는 빙리의 모습과 다아시의 외관을 스케치 하듯이 짧은 흘문장으로 서술하고 있다. 원문에서는 5개의 흘문장으로 두 중심인물의 이미지를 묘사하고 있다. TT1, TT2에서는 원문과 동일하게 5개의 흘문장으로, TT3, TT4에서는 6개의 흘문장으로 문체를 재현하고 있다. TT3, TT4가 원문에 비해 다소 강조의 효과가 강화되었다.

ST “May I ask to what these questions tend?”
“Merely to the illustration of your character,” said she, endeavouring to shake off her gravity. “I am trying to make it out.”
“And what is your success?”
She shook her head. “I do not get on at all. I hear such different accounts of you as puzzle me exceedingly.” (136)

TT1 “그 질문은 어디에 쓰려고 하시는 거죠?”
“선생님의 성격을 예증하려는 것뿐예요.” 하고 그녀는 심각한 표정을 지우려고 애쓰면서 말했다. “그것을 확실히 하고 싶어요.”
“그래, 얻은 것이 무엇이죠?”
그녀는 머리를 흔들었다. “진행이 잘 안되는군요. 선생님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갈피를 못 잡겠어요.” (108)

TT2 “어떤 의도로 이런 질문을 하시는지 여쭙어 봐도 될까요?”
“그냥 당신의 성격을 그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녀는 진지한 태도를 떨치려고 노력하며 말했다. “그걸 밝혀보려고 노력하는 중이거든요.”
“그렇게 노력해서 얻으신 결론은?”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전혀 아무런 결론도 얻지 못했어요. 당신에 대해 너무나 엇갈리는 설명을 들어서 아주 헷갈려요.” (136)

TT3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건가요?”
“선생님의 성격을 알아보려는 것뿐이에요. 그것을 확실히 알고 싶어요.” [내용 누락] (90)

TT4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죠?”
“선생님의 성격을 예증하려는 것뿐예요” 하고 그녀는 심각한 표정을 지우려고 애쓰면서 말했다. “그것을 확실히 하고 싶어요.”
“그래, 얻은 것이 무엇이죠?”
그녀는 머리를 흔들었다. “진행이 잘 안 되는군요. 선생님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갈피를 못 잡겠어요.” (116)

엘리자베스의 다아시에 대한 평가와 그 변화 그리고 다아시의 엘리자베스에 대한 태도를 훌륭하게 묘사하는 데 있어 대화체는 큰 효과를 거둔다. 엘리자베스와 다아시의 관계는 첫 만남에서 시작된 서로에 대한 편견과 오해로 갈등을 겪는다. 다아시는 복잡한 인물로서, 성격연구가(character studier)를 자처하는 엘리자베스에게도 다아시의 인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원문에서는 일곱 개의 흘문장으로 두 인물의 대화를 나타내고 있다. 번역문에서는 TT3을 제외하고 세 번역에서 모두 원문과 동일하게 일곱 개의 흘문장으로 문체를 재현하고 있다. TT3에서는 번역문 일부가 누락되어 있다.

ST ‘Impossible, Mr Bennet, impossible, when I am not acquainted with him myself; how can you be so teasing?’ (12)

TT1 “당치도 않아요. 나도 안면이 없는데 내가 소개를 해요? 왜 이렇게 사

람을 못살게 구는 거예요?” (15)

TT2 “말도 안돼요, 여보, 나부터가 모르는 판에 그게 말이나 돼요. 어쩔 그렇게 사람 약을 올리세요?” (14)

TT3 “당치도 않은 소리 그만하세요. 나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소개해요? 왜 그렇게 당신은 사람을 못살게 구세요?” (12)

TT4: “당치도 않아요. 나도 안면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소개를 해요? 아 니, 도대체 왜 이렇게 사람을 못살게 구는 거예요!” (14)

베넷 부인이 남편이 빙리 씨를 빨리 만났으면 하는 조급한 마음을 갖고 안절부절 못하는 상황인데, 남편 베넷이 부인을 능청스럽고 짓궂게 놀리는 대목이다. ST에서 베넷 부인은 불완전한 문장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 TT1, TT2, TT3, TT4 모두 앞의 불완전한 문장을 완전한 문장으로 번역했다. 또한 4종의 번역본에서 공통적으로 부인이 남편에게 비격식체 ‘두루높임(해요체)’을 사용함으로써 부인의 불쾌한 감정 전달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

3.3 문장부호의 번역

문장부호는 서술, 명령, 청유, 강제, 의문, 감탄, 빈정거림, 휴지 등을 드러내는 중요한 형식문체소로, 호흡을 조절하며 문장 구성 요소 간의 논리 관계를 설정한다. 문장의 종결 형태에 따라 온점, 느낌표, 물음표 등이 사용되며, 문장 내에서는 반점이 사용되기도 한다.

소윈스키(Sowinski 1991)에 따르면 온점은 문장에서 단절과 종결이라는 문체적 효과를 부여하는 한편, 느낌표는 감탄, 놀람, 부름, 명령 등 강한 느낌을 드러내고 물음표는 물음, 반어, 빈정거림, 의문 등을 표현하며, 반점은 숙고하는 휴지를 도입하도록 텍스트에서의 템포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사용하는 등 호흡 조절을 통한 문체적 효과를 창출한다(이덕호 옮김 1999: 181).

아래에서는 문장부호에 따라 상황 묘사가 어떤 방식으로 달라지는지를 살펴해보겠다.

ST 'Is he married or single?'

'Oh! single, my dear, to be sure! A single man of large fortune; four or five thousand a year. What a fine thing for our girls!'

'How so? how can it affect them?'

'My dear Mr Bennet,' replied his wife, 'how can you be so tiresome! You must know that I am thinking of his marrying one of them.'

TT1 “결혼했소, 아니면 독신이요?”

“틀림없이 혼잘 거예요. 독신 재산가에다 일 년에 4, 5천 파운드라니, 딸애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솔깃한 얘기란 말예요.”

“그건 왜? 그게 그 애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소?”

“내 참” 하고 부인이 대답했다. “왜 그렇게 멍청한 소리만 해요.

그 집에 오는 사람이 우리 집 애들 중에서 하나 골라잡을지 누가 알아요?” (12)

TT2 “기혼이요, 미혼이요?”

아유! 여보, 미혼이예요, 아무렴요! 갑부 총각이라고요. 연 수입이 4, 5천은 된대요. 우리 애들한테 얼마나 잘 된 일이에요!”

“아니 왜? 그 애들하고 무슨 상관이기에?”

“아이 참 한심한 양반이네!” 하고 부인이 대꾸했다.

“그 총각이 우리 애들 중 하나랑 결혼할 거라는 소리지요, 뭘.” (10)

TT3 “결혼은?”

“틀림없이 독신일 거예요. 독신 재산가라! 일 년에 4, 5천 파운드! 딸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솔깃한 이야기예요?”

“그건 왜? 그게 딸들과 무슨 상관이란 말이요?”

“아니 여보? 왜 그렇게 멍청한 소리를 하세요? 그 집으로 이사 오는 남자가 우리 애들 중 누구와 사랑에 빠질지도 모르잖아요?” (8)

TT4 “결혼했소, 아니면 독신이요?”

“틀림없이 혼잘 거예요. 독신 재산가에다 일 년에 4, 5천 파운드라니, 딸애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솔깃한 얘기란 말예요.”

“그건 왜? 그게 그 애들하고 무슨 상관이요?”

“내 참” 하고 부인이 대답했다. “왜 그렇게 멍청한 소리만 해요. 그

집에 오는 사람이 우리 집 애들 중에서 하나를 골라잡을지 누가 알아요?” (10)

원문은 사건 전개와 함께 등장인물의 성격을 창조하는 수단의 훌륭한 예로 1권 1장에서 베넷부부가 빙리 씨가 네더필드의 새로운 주인으로 오는 것에 대해 나누는 대화이다. 베넷 부인은 소설 속 대화에서 장황하며 충동적인 감탄사를 연발하는데, 이해력이 떨어지고 기분이 들쭉날쭉한 그녀의 성격을 잘 보여 준다. TT2, TT3은 느낌표를 사용하여 감정의 기복을 재현하고 있으며 TT1, TT4에서는 일반적인 평서문으로 나타내어 베넷 부인의 성격묘사를 충분히 드러내지 못했다.

ST ‘How strange!’ cried Elizabeth. ‘How abominable!’—I wonder that the very pride of this Mr Darcy has not made him just to you! (92)

TT1 “참 이상하군요!” 하고 엘리자베스는 소리쳤다. “얼마나 미운 짓예요! 그렇다면 지금 다르시 씨는 자존심 그 자체를 위해서라도 선생님께 공평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게 이상하지 뭐예요!” (95)

TT2 “어떻게 그럴 수가!” 엘리자베스가 외쳤다. “정말 말도 안돼요! 자존심 때문에라도 지금의 다아시 씨가 당신한테 공정하게 대하지 않았다는 게 신기하네요!” (117)

TT3 “정말 알 수 없는 일이군요! 그렇다면 그분은 자존심 그 자체를 위해서라도 일을 더 공정하게 처리해야 했을 텐데.” (79)

TT4 “참 알 수 없는 일이군요!” 하고 엘리자베스는 소리쳤다. “얼마나 미운 짓예요! 그렇다면 지금 다르시 씨는 자존심 그 자체를 위해서라도 선생님께 공평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게 이상하지 뭐예요.” (101)

엘리자베스가 다아시 씨의 비도덕성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놀라움과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대목이다. ST에서 엘리자베스가 강한 의문을 나타내며 연달아 느낌표를 사용하고 있는데 TT1, TT2, TT4에서는 모두 각 문장을 느낌표로

처리함으로써 흥분된 감정을 잘 전달하고 있다. 반면, TT3에서는 첫 문장은 느낌표를 살렸지만 그 다음 부분은 번역에서 누락되어 있다. 따라서 주인공의 심적 상태가 잘 전달되지 못하며 문체가 변형되었다.

ST ‘How good it was in you, my dear Mr Bennet! But I knew I should persuade you at last. I was sure you loved your girls too well to neglect such an acquaintance. Well, how pleased I am! and it is such a good joke, too, that you should have gone this morning, and never said a word about it till now.’ (20)

TT1 “당신은 참 좋은 분이예요! 결국 나한테 설득당할 줄 알았어요. 딸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이런 교제를 소홀히 하실 리가 없지요. 참 잘됐어요! 그런데다 사람까지 놀리시다니, 아침에 찾아보시고는 지금까지 아무얘기도 안 하실 수 있어요?” (17)

TT2 “당신은 참 좋은 분이세요, 여보! 그래도 제가 끝내는 당신을 설득하게 되리란 걸 알고 있었어요. 당신처럼 딸들을 사랑하시는 분이 그런 사람과 알고 지낼 수 있는 기회를 몰라라 하지 않으시리란 걸 말이에요. 정말이지, 너무너무 기뻐요! 어쩔 그렇게 잘도 속이세요. 오늘 아침에 다녀오고도 지금까지 한마디도 안 하시다니.”

TT3 “당신은 정말 훌륭해요. 결국 내 말을 들을 줄 알았어요. 딸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그 사람과의 교제를 소홀히 할 수 있겠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그런데 아침에 만나 보시고 여태껏 아무 말씀도 없으시다니!”

TT4 “당신은 정말 좋은 분이예요. 결국 나한테 설득 당할 줄 알았고말고요. 딸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이런 교제를 소홀히 하실 리가 없지요. 참 잘 됐어요. 그런데다 사람도 잘 놀리시고, 아침에 찾아보시고는 여태껏 아무얘기도 안 하실 수 있어요?”

남편 베넷이 빙리를 방문했다는 소식에 베넷 부인이 어쩔 줄 몰라 하며 기뻐하는 상황이다. 원문에서는 느낌표를 연발하며 흥분을 표현하고 있다. TT1, TT2에서는 원문의 느낌표를 재현하고 있는 반면에 TT3, TT4에서는 마침표로

나타내어 베넷 부인의 기쁨과 흥분이 충분히 표현되지 않고 있다.

문장부호의 번역에 있어서는 조심할 부분도 있다. 동일한 모양의 문장부호라도 영어와 한국어에서 기능과 용법이 다르기 때문에 문장부호의 재현이 문체론적 효과의 상이함, 심지어는 오역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점이다.

다음을 살펴보자.

ST The subject elevated him to more than usual solemnity of manner, and with a most important aspect he protested that he had never in his life witnessed such behaviour in a person of rank—such affability and condensation, as he had himself experienced from Lady Catherine. (45)

TT1 이 화제는 그의 기분을 고상하게 만들어 흔히 볼 수 없을 정도의 엄숙한 태도를 취하게 했다. 그리고 귀족의 그러한 태도—자기가 캐터린 영부인에게서 경험한 것 같은 정다움과 친절은 한 번도 느껴본 일이 없었다고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그는 확인했다. (78)

상기 예시를 살펴보면 ST에서 사용된 영어 문장부호 대시를 TT1에서 한글 문장부호 줄표로 대체한 것을 알 수 있다. ST에서 사용된 대시는 동격 및 강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즉, 대시 앞의 ‘behaviour’에 대한 내용을 대시를 이용해 따로 표기함으로써 강조의 문체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의 번역인 TT1에서는 대시와 동일한 문장부호인 줄표를 사용했는데, 줄표의 보충 및 부연 설명 기능이 대시의 동격 및 강조의 기능을 포괄하므로 ST의 대시를 TT1에서 보충 및 부연 설명의 기능을 하는 줄표로 대체하는 시도는 언뜻 보기에는 유효한 번역전략으로 생각될 수도 있다. 하지만 TT1의 번역은 오역⁵⁾이다. TT1에 쓰인 줄표가 비록 보충 설명의 기능을 수행하고는 있으나 <한글 맞춤법>에 따르면 줄표를 이용해 앞의 내용에 대해 부연할 경우 문장 중간에 줄표가 두 개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줄표를 하나만 사용한 TT1의 경우 한국어 용법에 부합

5) 본고에서는 오역의 범주에 ‘의미의 왜곡’과 더불어 ‘맞춤법 오류’ 또한 포함시키기로 한다. 이는 <한글 맞춤법>이 대표적이고 객관적인 도착어 규범이고, 도착어 규범에서 벗어난 번역은 수용성을 저해하며[푸르티넨(Puurtinen 1998): 2] 자연스러움을 훼손시키기 때문이다(한만열 2000: 194).

하지 않다. 용법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줄표를 두 개 사용하면서 ‘그러한 태도 – 자기가 캐더린 영부인에게서 경험한 것 같은 정다움과 친절 – 는’이라 번역해야 한다.

이와 같이 문장부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경우 오역으로 이어지기 쉬울 뿐 아니라, 문체 효과 재현이 제한될 수도 있다.

아래에서는 원문의 문장부호를 번역문에서 다른 장치로 바꾼 경우를 살펴 보면서 논의를 이어가자.

ST She was received, however, very politely by them; and in their brother's manners there was something better than politeness; there was good humour and kindness – Mr. Darcy said very little, and Mr. Hurst nothing at all. (23)

TT1 그러나 그들은 아주 공손히 그녀를 맞았다. 그 집 남자들의 태도에는 단순히 공손함뿐만 아니라 상냥함과 친절함도 배어 있었다. 그러나 다르시 씨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허스트 씨도 전혀 말이 없었다. (43)

ST에서 사용된 대시는 급격한 단절 및 생각 흐름의 변화를 표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즉, 대시 앞부분에서는 상냥하고 친절한 사람들에 관한 내용이며 대시 뒷부분에서는 앞 내용과 반대되는 말이 없고 무뚝뚝한 사람들인 다르시와 허스트에 관한 이야기로서 내용 흐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의 번역인 TT1에서는 대시를 역접 접속사 ‘그러나’로 번역하면서 문장을 두 개로 분리했다. 요약하자면, 문장부호의 용법과 기능의 차이로 인해 TT1에서는 ST의 대시를 역접 접속사 ‘그러나’로 번역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른 형식문체소와는 달리 문장부호의 번역에 있어서는 동일한 문장부호의 유지 또는 재현이 힘든 경우가 종종 있다. 기능과 용법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문체 효과에서 차이를 보일 때가 많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한국어는 어미가 발달한 언어이기 때문에 문장부호 사용 빈도가 영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도 번역 시 유의해야 한다.

3.4 행의 번역

행은 특유의 문체효과를 발산하며, 행을 나눌 경우 행간에서 연상되는 사실들을 연상시키거나 대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일문일단락(one-sentence paragraph)’이란 문장 하나가 한 단락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행이 자주 바뀌게 되면 경쾌하고 시각적 리듬감을 줄 수 있으며 강조는 물론 선명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또한 일문일단락은 장면과 사건에 대해 강조적인 성과를 부여해 줄 뿐만 아니라, 수채화처럼 인상을 선명하게 만드는 효과를 창출한다(한미애 2010: 296).

『오만과 편견』의 첫 문장에서 사용된 기법으로 강조 효과를 창출하는 장치 중에는 시각적 구성과도 관련 있는 부분도 있다. 텍스트의 시각적 구성은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이고 머릿속 지도를 만드는 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오만과 편견』 소설 원문의 첫 도입부는 소설 전체의 서술시점인 과거시제와는 달리 현재시제로 서술되어 있으며 소설전체에서 다루려고 하는 주제를 암시적으로 독자들에게 시사하고 있다.

ST It is a truth universally acknowledged, that a single man in possession of a good fortune must be in want of a wife.

However little known the feelings or views of a man may be on his first entering a neighbourhood, this truth is so well fixed in the minds of the surrounding families, that he is considered as the rightful property of some one or other of their daughters. (5)

TT1 재산깨나 있는 남자가 독신일 경우에 아내가 필요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진리다.

이러한 남자가 이웃에 이사 오면 그의 성격이 어떻다든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마을 사람들이 잘 모른다 하더라도, 앞서 말한 진리가 주위 사람들의 마음 한 가운데에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웅당 수많은 딸들 가운데 누군가가 그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11)

TT2 재산깨나 있는 독신 남자에게 아내가 꼭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진리다.

이런 남자가 이웃이 되면 그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을 거의 모른다고 해도, 이 진리가 동네 사람들의 마음속에 너무나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그를 자기네들 가운데 하나가 차지해야 할 재산으로 여기게 마련이다. (9)

TT3 혼자 살고 있는 남자가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사람들은 그에게 아내가 필요하리라 생각할 것이다. 또한 이런 사람이 가까이 이사라도 오면, 그가 왜 혼자 살고 있는지 보다는 혼자 살고 있으므로 꼭 아내가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에, 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혹시 그를 사위로 삼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7)

TT4 재산깨나 있는 남자가 독신일 경우에 아내가 필요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진리다.
이와 같은 진리가 마을사람들의 마음 한가운데 꼭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남자가 이웃에 이사 오면 응당 수많은 딸들 가운데 누군가는 그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9)

첫 번째 문장은 이 소설의 중심적인 이야기가 되는 결혼 시장의 주제를 매우 적절하게 도입하고 있으며 또한 독자들로 하여금 등장인물들의 관심이 ‘결혼’에 집중되어 있음을 아이러니하게 받아들이게 해준다. TT1, TT2, TT4는 원문과 동일하게 첫 문장을 하나의 단락으로 처리했으며 다음 문장을 행을 바꾸어 새로운 단락으로 분명하게 표현했다. 따라서 시각적으로 여백을 남기면서 장면전환 효과를 살린 반면에, TT3은 첫 문장에 대한 독립된 단락 구분 없이 바로 다음 문장을 연결하여 시각적 효과가 떨어지고 여백의 미가 결여되고 상상력이 감소된다. TT3은 가독성을 다소 높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원문의 문체적 특성을 반감시키는 번역 결과를 초래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문체의 가치를 강조하고 문체를 구성하는 문체소의 유형을 파악한 후 형식문체소의 번역을 다루었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연구문제, 분석 텍스트를 제시했다.

제2장에서는 문체의 중요성, 의미, 가치를 논하면서 문체와 의미가 서로 영향을 미치며 독립적인 요소가 아닌 불가분의 관계임을 논증했다. 이와 더불어 문체의 발달 과정, 문체와 문체소의 관계, 문체소의 유형을 다루었다.

제3장에서는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에 드러나는 문체와 번역을 살펴 보았다. 4종의 번역서를 비교했으며, 문장의 길이, 문장의 구조, 문장부호, 행의 번역을 살펴봄으로써 대표적인 형식문체소의 효과와 번역 양상을 다루었다. 문장의 길이, 문장의 구조, 행은 원문과 대등하게 유지하는 것이 문체 효과 재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반면 문장부호의 번역에 있어서는 기능 및 용법의 차이로 인해 번역 시 다른 가용 장치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드러났다.

본 연구에서는 번역에서 부차적 요소로 간주되는 문체를 번역의 중요한 요인으로 전제한 후 문체소의 유형을 살펴보고 형식문체소의 번역을 논했으나 연구에 있어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문체소를 내용과 형식으로 양분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둘째,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는 이유로 내용문체소의 번역을 다루지 않았는데, 내용문체소 역시 문체를 이루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다룰 필요가 있다. 셋째, 형식문체소의 번역이 작품 전체의 번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이는 후속 연구에서 다루어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본 연구는 큰 틀에서 보면 아주 작은 부분만을 다루었을 뿐이며 부족한 점도 많다. 앞으로 보다 많은 연구가 축적되고 문체소 번역의 틀이 확립되어 번역가들이 직관과 더불어 활용할 수 있는 작은 지침이 마련되리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국내>

- 김도훈 (2014) 「형식문체소의 번역 - 제임스 조이스의 <젊은 예술가의 초상>을 중심으로」, 『영어영문학 21』 27(1): 69-91.
 김상태, 박덕은 (1994) 『문체론』, 서울: 법문사.

- 김양훈 (2011) 「문체에 대한 언어학적 연구」, 『독어교육』 52: 63-86.
- 김효중 (1988) 「번역의 이론과 실제: 문학작품 번역을 중심으로」, 『성곡논총』 19: 243-292.
- 박갑수 (1994) 『국어문체론』, 서울: 대한교과서.
- 박옥수 (2011) 「한영문학 번역에서 문체의 반영 - 박완서의 「그 살벌했던 날의 할미꽃」의 분석에 근거해서-」, 『겨레어문학』 46: 69-95.
- 이덕호 옮김 (1999) 『문체론: 문체이론과 문체분석』, 서울: 한신문화사.
(Sowinski, B. (1991) *Stilistik: Stiltheorien und Stilanalyse*)
- 장하늘 (2001) 『글 고치기 교본』, 서울: 문장연구사.
- 한만열 (2000) 「지역의 문체와 문장부호의 오용」, 『국제회의 통역과 번역』 2: 193-214.
- 한미애 (2010) 「황순원 소설의 문체번역 가능성: ‘소나기’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1(1): 293-310.

<국외>

- Baker, Mona (1992) *In other words: A coursebook on translation*, London: Routledge.
- Lederer, Marianne (1994) *La traduction aujourd'hui*, Paris: Hachette.
- Nida, Eugene. (1964) *Toward a science of translating*, Leiden: E. J. Brill.
- Nida, Eugene and Charles Taber (1969) *The theory and practice of translation*, Leiden: E. J. Brill.
- Puurtinen, Tina (1998) Syntax, readability and ideology in children's literature. *Meta* 43 (4): 1-10.
- Seleskovitch, Danica and Marianne Lederer (1991) *Interpréter pour traduire*, Paris: Didier Erudition.

<분석 텍스트>

- Austen, Jane (1989) *Pride and Prejudice*, New York: Signet Classics.
- 오화섭 옮김 (1989) 『오만과 편견』, 서울: 범우사.
- 윤지관, 전승희 옮김 (2005) 『오만과 편견』, 서울: 민음사.
- 정은경 옮김 (2005) 『오만과 편견』, 서울: 청목.
- 정홍택 옮김 (2003) 『오만과 편견』, 서울: 소담.

[Abstract]

Translating Style Markers of Jane Austen's *Pride and Prejudice*

Kim, Dohun & Lee, Eunsook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tyle has been neglected in the discipline of translation studies as well as translation practice, since meaning has been considered to be the main agent to be transferred in translation. Nevertheless, meaning and style are inseparable: both elements affect and create each other. Also, style markers in literary writing deliver a number of effects—scene change, slide effect, tempo, rhythm, and so forth. In most cases, they are the writer's intentional devices that need to be carefully transferred or maintained—so far as possible—by the translator.

In a bid to raise recognition of style in literary translation, this paper explores the origin and value of style, elements of style, types and roles of style markers, and translation of form style markers.

First, this research defines the concept of style and style markers, and classifies style markers into two categories: content and form. Second, it discusses in detail the relationship between form style markers and translation. Third, it compares Jane Austen's *Pride and Prejudice* and its Korean translations (4 target texts) to examine how stylistic effects are maintained or distorted in the course of translation. Translation of 4 types of form style markers—sentence length, sentence structure, punctuation, and line—are dealt with herein.

The author hopes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riggering further discussion on the issue and to presenting guidelines for those in the translation profession.

▶ Key Words: form style marker, punctuation, sentence length, sentence structure, style

김도훈

부산외국어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한영과 교수

kdh8377@bufs.ac.kr

관심분야: 비교언어학, 문화소 번역, 문체론

이은숙

부산외국어대학교 영어학부

bigworld21@bufs.ac.kr

관심분야: 문학번역, 비교문학, 기호학

논문투고일: 2014년 11월 1일

심사완료일: 2014년 11월 25일

게재확정일: 2014년 12월 4일